

이홍재의 세상만사



* 신라의 현안왕은 슬하에 아들이 없었다. 어느 날 왕은 이제 열다섯 살이 된 소년을 불러 묻는다. “선인(善人)을 본 적이 있는가?” “예, 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인으로서 겸손한 자, 부자로서 겸손한 자, 세력가로서 교만하지 않은 자입니다.”

왕이 감복해서 그를 사위로 삼는데, 이렇게 해서 훗날 왕이 된 이가 바로 신라 48대 경문왕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주인공이 바로 그다. 왕의 두건을 만들던 장인(匠人)이 죽기 전에야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쳤다는 이야기.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전해 온다.

* “얼음 위에 맺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마정/ 정(情) 나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고 러가요 ‘만전춘’(滿殿春)의 첫 구절이다. 설사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가운 얼음 위에 맺잎(대나무 이파리) 깔고 누워 함께 뒹굴고 싶단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남녀의 정념(情念) 아닌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임과 함께라면 밤이 새는 것이 안타까울지니, 잠으로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 노래라 하겠다.

* 두리번두리번, 독방길을 걸으며 매표소를 찾는데 우선 송수권의 시(‘대숲 바람소리’)가 눈에 띈다. “대숲 바람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흐르는 게 아니랴요/ 서느라온 모시옷 물맛 나는 한 사람의 냉수물에 어리는/ 우리들의 맑디맑은 사랑” 한 발짝 걸음을 땀 때마다 시 한 수씩을 감상한다. 대부분 대나무와 관련된 시들이다. 대나무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인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이곳 관방제 부근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다.

내일 폐막 대나무박람회 ‘대박’

관방제(官防提)는 관에서 쌓은 제방이란 뜻이다.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다 훌쩍 떠나갈 할 때는 무심히 지나쳤던 안내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1648년 담양 부사(府使) 성이성(成以性)이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는 관방제 조성의 유래가 적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실제 모델이 바로 이 담양 부사였다”라는 설명이다. 언젠가 연세대 국문과 설성경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어찌 됐든 관방제를 조성한 성 부사는 아버지가 남원 부사를 지낼 때 남

껴안고 뒹굴며 맘껏 소리 질러 봐

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 호남 지역 암행 어사가 된 적이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 관방제 다리를 건너 종합 안내소에서 관람 동선을 묻은 뒤, 대나무박람회를 둘러본다. 전시관에 들어서니 한쪽에 집제한 한 커다란 전구가 있다. 대나무를 전구의 필라멘트로 사용해 실험에 성공했다는 에디슨의 이야기다. 기업관·국제관에는 대나무로 만든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있다. 대나무의 쓰임새가 이렇게도 많았던가.

감을 탈 때 썰던 간짓대, 뿔랫줄을 받치는 바지랑대, 고운 머리 찰찰히 빗어 내리는 참빗... 이처럼 예전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긴요했던 대나무는, 때로는 약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일찍이 소설가 김훈도 그의 산문 ‘약기의 숲, 무기의 숲’에서 이를 말한 적이 있다. 죽창과 피리다.

그리고 보니 대나무를 말하면서 ‘대나무 피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인 만파식적(萬波息笛). 죽어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이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는데, 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적의 군사는 물러가고, 병은 나고, 물결은 평온해졌다고 한다. 역시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다.

* 친환경농업관을 천천히 걷는 것도 쓸쓸한 재미다. 뽕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뽕오이, 마치 달걀 모양을 한 흰새 달걀까지... 각종 기묘한 식물

는 대나무 아이스크림, 대나무 엿, 맺잎 식혜 등 다양한 먹을거리도 널려 있다.

* 북적거리는 인파 속을 빠져 나와 ‘지붕 없는 전시관’인 죽녹원의 돌계단을 오른다. 하늘 높이 죽죽 뻗은 대나무 숲길의 고요함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대나무는 편백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톤치드를 내뿜는다고 하니, 이내 마음이 안온(安穩)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라.

문득 떠오른 몇 가지 아이디어

몇 걸음 채 옮기지 않아 ‘이이남 아트센터’가 보인다. ‘움직이는 그림’ 등 작가 특유의 예술세계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소소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아트센터 바로 아래에는 인간문화재인 채상장(彩箱匠) 서신경 씨의 작품이 전시된 건물이 있다. 대나무 껍질을 가늘고 얇게 만든 대오리에, 여러 가지 색깔을 들어 가로세로로 엮어 만든, 죽색공예품의 정수(精髓)가 바로 채상(彩箱 : 채색한 무늬를 넣어 만든 대나무 상자) 아니던가.

* 죽녹원 뒷길로 빠져 벽화마을 입구에 이르니, 빨강·파랑 청사초롱 내걸린 주막(酒幕)이 우리를 반긴다. 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주모(酒母)를 부른다. 안주는 맺잎파전이다. 막걸리 몇 사발 들이켜고 나니 어느덧 해는 지고, 처마 끝에 가늘게 걸린 초승달만 처연하다.

막걸리 기운에 취한 것일까. 아니면 대나무 피

톤치드와 음이온에 흠뻑 젖은 탓일까. 만에는 제법 기발한 듯싶은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른다. 다음번 박람회 때는 이런 코너도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 그 아이디어 하나- ‘맘껏 소리 질러 봐. 장소는 죽녹원이 좋겠다. 먼저 지붕과 방음벽을 둘러친 조그만 방을 마련한다. 방 안에는 작은 대나무 한 그루 심어 놓고, 입구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를 적어 놓는다.

이곳에 들어가면 누구나 맘껏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연인끼리라면 ‘선영아, 사랑한다’라고 외쳐도 좋겠고, 요즘같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심화(心火)가 끓어오른다면, 소리 높여 욕지거리를 한다 해서 누가 뭐라 하겠는가. “또다시 유신독재 시대로 돌아가잔 말이나, 이 18X들아!”

* 그 아이디어 둘- ‘껴안고 뒹굴어 봐’. 역시 죽녹원에 한두 평 정도의 조그만 집이면 되겠다. 입구에는 ‘얼음 위에 맺잎 깔고’로 시작되는 ‘만전춘’의 시구(詩句)와 해설을 적어 놓는다. 방 안에는 어른 침대 크기의 얼음을 준비하고 그 위에 맺잎 몇 장을 간다.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은 맺잎 깔린 얼음 위에 누워서 껴안고 뒹굴 수 있다. 사람이 너무 몰린다면 심연 입장료는 한 5백 원 정도 받아도 되고. 다만 염려되는 것은 풍기문란(風紀紊亂)인데, 격정할 것 같다. 차치한 얼음 위에서 ‘지’들이 버티면 얼마나 ‘버틸’라고.

〈주필〉

강진 오감통 음악창작소...주부·농부 악기 배우기 열풍

1기 밴드 이어 2·3기도 준비...“무대 주인공 되니 인생 즐거워”

군민 1인 1악기 연주 운동...“음악 경제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집안일과 육아로 바빠던 주부’, ‘추수작업 마무리 바쁜 나날을 보냈던 농부들’이 무료한 일상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외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평소 ‘악기’라고는 초등학교 시절 배운 리코더와 어른이 돼 노래방에서 흔들어진 탬버린이 전부였던 시골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밴드를 결성하겠다고 일성타발을 선언한 것이다. 제1기 밴드 결성에 이어 제2기, 제3기 밴드도 결성을 준비중이다.

‘감성문화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조용한 시골 자치단체 강진군에 ‘밴드결성’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 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음악밴드반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강진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음악밴드반 강좌는 음악밴드를 구성하는 분야별 모집(보컬, 드럼, 기타, 건반)을 통해 제1기 음악밴드반을 결성했으며, 제2기, 제3기 밴드반 결성도 준비중이다.

강진군은 오감통 음악창작소 개관 이후 외부 가수나 전문밴드의 활동은 물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민 1인 1악기 연주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강진군은 음악이 핵심 콘텐츠인 오감통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음악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음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성된 강진 오감통은 전통시장 바로 옆에 녹음시설과 공연장, 게스트 하우스를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 음악·전통시장·음식을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오감통에 개설된 밴드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전 2시간씩 강진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이뤄지며 밴드를 구성하는 악기인 드럼, 기타, 건반 연주, 보컬 연습 등 개별연습과 밴드합주 연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1기 밴드반 수강생인 주부 김송자(55)씨는 “평범한 주부에서 벗어나 음악과 함께 하다 보니 내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지루했던 인생도 너무 즐겁게 느껴진다”며 활짝 웃었다.

평생학습 음악밴드반원들은 평생학습센터내 노래교실, 통기타, 하모니카반과 함께 강진지역 축제와 각종 공연 행사에 참여하는 등 재능 기부를 하



강진군 평생학습 제1기 밴드반원들이 강진 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드럼연습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는 것이 목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오감통 밴드반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열기가 매우 높다”면서 “강진은 역사적으로도 다산 상상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지역으로, 앞으로 도 각종 교육시스템을 강화해 강진을 전년을 대표하는 평생교육의 산실로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밴드 참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직장인 등 주간 밴드반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야간반을 개설하기로 하고, 내달 1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수강 신청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를 참고하거나 강진군청 미래산업과(061~430~3064), 강진군 평생학습센터(061~432~1252)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천경자 ‘미인도’ 위작 맞다고 봐”

위조범 수사 최순용 전직 검사

1999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고서화 전문위조범을 수사한 전직 검사가 이 작품이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



최순용 변호사

는 28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아카데미 고미술문화대학이 주최한 강연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그 사건은 제가 수사했다”고 말을 꺼낸 뒤 고서화 전문위조 혐의로 검거된 권모(당시 52)씨가 구속되고 나서 어느 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니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는 천 화백의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고 해 반신반의하다가 진술을 받았다”고 사건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작품에 대해 작가가 직접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때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999년 고서화 위작 및 사기판에 사건으로 구속된 권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화랑을 하는 친구 요청에 따라 소액을 받고 달력 그림 몇 개를 써서 ‘미인도’를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위작 시비가 재연됐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고통 끝 결혼정보회사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출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6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6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 1~2회, PM 7시~11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향상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업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입학원서 작성	2015. 11. 9.(월) ~ 2015. 11. 20.(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2015. 11. 9.(월) ~ 2015. 11. 20.(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요)
창구	2015. 11. 9.(월) ~ 2015. 11. 20.(금) 09:00~18:00
전형일	2015. 12. 8.(화) 10:00~
합격자 발표	2015. 12. 22.(화)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환경경영학/식품·차산업학/지역발전지원공학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20명)/전기전자컴퓨터공학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a.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